

불황 풍랑 속에 학술·계간지들 '일업편주'

《한국학보》 폐간 등 대부분 학술지 어려움... 정부·기업의 출연 시급

계절의 전령사 학술·문에 계간지들의 올 봄호가 조금 늦는다. 종이값을 비롯한 제작비 상승으로 계간지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학술·문예지들은 단행본의 밑거름이나 최신 사상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모으기 위한 작업으로, 출판사에서 돈벌이이기보다 투자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잡지 제작비가 출판사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각 계간지들은 면수 줄이기와 책값 인상 등으로 어떻게든 지구책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휴간 혹은 폐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곳도 있다.

한국학의 본산마저 폐간

독자가 특정 학문집단으로 한정되는 학술지의 어려움은 특히 크다. 순수 학술지의 대명사였던 《한국학보》는 올 봄호를 끝으로 폐간한다. 《한국학보》는 지난 22년간 3백20여학자의 논문 4천3백여편을 발표해 명실상부한 '한국학의 본산'이었다. 이 학술지의 발간을 맡아왔던 일지사의 김성재 사장은 "출판업을 끝낼 때까지 내려고 했는데, 누적된 적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폐간하게 되었다"고 비감해 하면서, "믿을 만한 출판사가 잡지발간을 계속하겠다는 《한국학보》를 넘겨줄 의사가 있다"며 측면 지원을 바랐다.

여러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을 대행해 왔던 창작과비평사(대표 김운수)도 올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학술지 발간을 중단한다.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의 《법과 사회》, 민족문학사연구회의 《민족문학사연구》, 한국여성연구회의 《여성과 사회》, 영미문학연구회의 《안과 밖》 등 반년간 학술지의 교정 및 제작, 기획비 지원을 맡아왔는데, 단계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김이구 편집장은 "순수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연구성과를 대중화하고 진보적인 학문 풍토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술지의 성격에서 탈피해 대중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발간을 계속할 명분이 없다고 말한다. 다른 출판사가 발행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넘길 생각이다.

지면축소는 대부분의 계간지들이 생각하

한국학의 본산인 《한국학보》가 올 봄호를 끝으로 폐간하고, 창작과비평사에서 발간해왔던 학술지들의 대부분도 중단한다는 소식이다. 이밖에 이제 막 시작된 인문학술지들도 면수 줄이기와 책값 인상 등의 지구책 마련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제한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학술지들.

는 대책이다. 범양사출판부(대표 이은범)가 펴내고 있는 과학전문지 《과학사상》은 올 봄호부터 논단 2편 정도를 줄일 계획이고, 지난해 9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역사비평》은 발간부수를 현실화해 재고를 없애고 지면축소로 제작비 부담을 덜려고 한다. 역사비평사(대표 장두환)의 김윤경 편집장은 "역사비평이 다루는 분야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폐간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원고료 지급이 1·2년씩 늦어도 두말 않고 귀한 원고를 내주는 필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한다.

지면축소·책값인상 등 고육지책

역사가 오래된 계간지들은 독자가 안정되어 형편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폭발적인 창간붐을 이뤘던 인문·사회과학잡지의 편집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다. 민음사(대표 박맹호)가 인문학의 부흥을 기치로 의욕적으로 창간한 《현대사상》은 이번 호 기획과 원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펴낼 예정이지만 1백쪽에서 2백쪽 정도로 면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다. 퇴색한 비평정신과 인문주의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창간한 비평전문계간지 《포에티카》도 무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휴간에 들어갔다.

교수신문사(발행인 이영수)에서 지난 여

름 퍼내기 시작한 우수논문게수록지 《열린지성》은 다음호 기획단계에서 이미 난항을 겪고 있다. 최영진 편집위원은 "창간 당시 2년 정도의 어려움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난해 기준"이었다며 발간 주기를 늘이거나 휴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수신문사는 《열린지성》의 발간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는데 1백20명의 편집기획위원 가운데 지원하는 이들에게 개인 출연도 받을 생각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마가진 리테레르》와 특약을 맺어 싱싱한 유럽사상의 창구역할이 기대되던 동문선(대표 신성대)의 《세계사상》은 지난해 호와 같은 책값에 오히려 지면이 늘어난 분호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호의 상황은 장담을 못한다. 박재환 주간은 《세계사상》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길사(대표 김언호)의 인문과학 무크 《신인문》은 최근 편집위원 회의만 3차례 했다. 처음부터 무크로 기획했기 때문에 계간지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 열심히 하자는 격려성 구호를 스스로 외쳐야 했다. 지난해 도서출판 이프(대표 윤석남)에서 창간, 3호를 펴내는 여성문화지 《이프》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리뷰를 가지 치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지면 운용을 해나

가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에 중점을 둔 《당대비평》(당대, 대표 김종삼)은 봄호부터 종이질을 바꾸고, 가격을 올린다. 모조지에서 서적지로 종이질을 내려 제작단가를 낮추고 책값은 9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당대의 김중석 편집장은 "종이값은 공식적으로는 45% 올랐지만 현금이 아니고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체감하는 인상폭은 훨씬 크다"고 한다.

각 문예지들도 봄호부터 지면축소와 책값 인상을 단행한다. 《세계의 문학》(민음사)은 지난해부터 6백여쪽의 분량을 3백50쪽 내외로 줄였고, 《문학과 사회》(문학고지성사, 대표 김병익) 역시 4백60여쪽을 3백80쪽 안팎으로 조정한다. 《실천문학》(실천문학사, 대표 김영현)의 이순화 편집장은 "면수를 줄이기보다 기존 내용에 충실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 한 방법으로 그동안 전체 페이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재생지 분량을 50%로 늘리고 값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창작과비평》(창작과비평사)도 계간지 1만원 시대에 동참했다. 《문학동네》(문학동네, 대표 강태형)의 남진우 기획위원은 "1만원대는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 같아 9천원에서 9천5백원대로 가격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다.

기업체의 출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학술·문예계간지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문예지들의 경우 단행본 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리수가 많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이 기회에 거품을 빼고, 각 계간지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학술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창작과비평사의 김이구 편집장은 "학술지 출간을 위해서는 다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출판사의 회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소가 내실을 기해야 하고, 정부 지원이나 기업체의 출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현주 기자